

색채문화 고급화의 첫걸음

한국표준색채연구소가 펴낸 「한국표준색채도표집」

이제까지 외국의 색채사전에 의존해왔던 표준색을 우리의 손으로 표준화한 「한국표준색채도표집」(FKSCCB 전4권)이 국내 처음으로 발간됐다. 한국미술진흥협회(이사장 김영제) 부설 한국표준색채연구소(소장 김석제)에서 5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된 이 도표집은 모두 9317색이 담겨 있어, 가장 많은 색채표본을 수록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먼셀표준색(1504색)과 DIC, PANTON(2048색) 보다 무려 7269색이나 많은 세계최대 색채수록집이라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 계기로 색채표준화 관심

표준색채도표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의 물감혼합물 기준치를 이른바 '색채사전' 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준색채는 세계적으로 합의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감 어떤 바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즉 얼마나 채도가 정밀한가에 따라 그 나라 색채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

구미 선진국에서는 50년~백년 전에 이미 색채표준집이 완성됐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색채표준집이 전세계에 널리 이용돼왔다. 우리의 경우 컬러TV시대가 시작된 1980년대에 와서야 색채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KBS방송사업단에서 6백색상 도표집을 만든 정도의 단계였다. 따라서 한국미술진흥협회에서 이번에 만든 색채표준집은 우리나라 색채문화의 독자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도표집에 담긴 9317색은 빨강

구미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색채표준집이 완성됐고, 최근까지는

일본의 색채표준집이 세계적으로

통용돼왔다. 우리의 경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색채표준화작업에

관심을 쏟아왔는데, 이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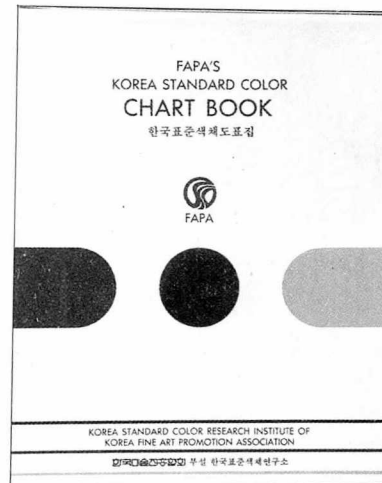
한국표준색채연구소에서 만든

색채표준집은 세계최대인 9317색을

수록하고 있어 자못 의의가 크다.

(Magenta) 파랑(Cyan) 노랑(Yellow) 검정(Black)의 4가지 기본색의 혼합변화를 77차트로 나누고, 다시 한 차트마다 10% 비율의 채도변화를 0~100%까지 11단계로 분류, 121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각 차트마다 혼합비율과 혼합상태의 색상을 보여줌으로써 색상의 기호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색깔재현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

이같은 색상변화는 광택 책표지·봉투지·포장지(UV가공 아트지)와 광택가공지(아트지), 무광택 아트지(스노우 화이트지) 그리고 광택무가공지(모조지) 등 4종의 지질에 따라 1권씩 수록함으로써 종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색감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색상과 바탕색과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이색깔인 흰색과 검정, 밝은회색·회색·빨강·주황·녹색·보라



등 8색의 커버마스크를 2권마다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도표집에 수록된 색상으로 약 16배에 달하는 별색제작도 가능하데, 색채연구소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9천색 이상의 색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컴퓨터로 계산된 인간의 재현가능한 색상이 모두 16만여종이라고 하니, 10년후 9만여 색상의 도표집이 완성되면 그 절반을 개발하는 셈이 된다.

산업미술 등 관련분야 발전 계기

사실 우리의 생활은 가히 '색채문화'로 충칭될 만큼 색채의 이용은 광범하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 신문잡지의 광고나 포스터 같이 흔히 접하는 인쇄매체에서부터 라이터나 양산, 자갈한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또는 전자제품이나 일반주택의 욕조·타일, 어린이 장

난감에서 공공환경의 설비물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색채로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의 독특한 이미지는 색채문화로 표출된다고 보면 좀더 세련되고 다양한 색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표준색채집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표준색채집이 나오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 교과과정의 조기색채교육을 위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며 디자인을 위한 실기교육과 산업미술계, 동시공학 분야 등에서 광범하게 활용, 관련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리란 전망이다.

한편 표준색채연구소는 매년 9천여색의 색상개발과 함께 별색표, 표준색표 제작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색채분해, 색채디자인, 도시색채환경연구, 색채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김석제소장은 앞으로 종이 아닌 필름제작과 잉크의 더욱 다양한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의 포부도 밝혔다.

색채표준집 발간을 계기로 출판계에서도 이제까지 일본의 「색채사전」 의존일변도에서 탈피,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우리의 색'으로 책을 꾸밀 수 있게 됨으로써 '보는 책의 시대'의 또다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FULL PAGE 편집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루벌에서는 Macintosh 기종의 입력·편집 시스템 20여 set, 자체출력기 3대(300~3000 dpi) 등 최첨단 DTP 시스템을 보유하여 사보, 잡지, 광고디자인, 단행본과 같은 모든 홍보물제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앞서만큼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기획출판 **마루벌** Tel: 701-2391 / Fax: 701-2395

*마루벌은 산마루의 마루, 벌판의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으뜸을 뜻합니다.

유능하고 패기있는 인재를 널리 찾습니다.

- 영업간부직(男)
- 편집디자인 유경험자(男·女)
- 매킨토시 편집 오퍼레이터 유경험자(女)

매킨토시로 작성된 file의 인화지·film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